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시장 전망

국내 통신 서비스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3.8%로 성장하여 2006년 26조 9천억 원에서 2011년에는 32조4천억 원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IDC에 따르면 국내 통신 서비스 시장은 2006년에 전년대비 3% 성장에 그치는 뚜렷한 포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최근 규제 완화 로드맵을 통해 유무선 교차진입을 허용하고 신규 통신사업자의 출현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은 유선, 무선 또는 통신 역무와 관계없이 더욱 첨예화 되어가고 있으며 규제 완화로 인해 다양한 결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08년부터 인터넷 전화의 번호이동제도 실시와 함께 인터넷 전화와 결합된 서비스들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시장 포화에도 불구하고 3세대 기반의 HSDPA 서비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가입자 확보 노력에 따라 2007년 가입자가 전년대비 6.9% 증가한 4,295만 명에서 2011년에는 4,570만 명의 시장으로 성장하여 93.3%의 보급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7년을 기점으로 EV-DO와 HSDPA/HSUPA를 포함한 3G의 가입자 비중이 2G 및 2.5G 가입자를 처음으로 넘어섰고 2011년에는 3G 가입자 비중이 8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 장비 시장의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HSDPA 전국 망 구축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면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2008년 이후에는 HSUPA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국내 유선 통신 장비 시장 규모는 시장 성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며, 상대적으로 FTTH나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확산과 IPTV 서비스 도입 등으로 인한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고도화 필요성 증가로 대용량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한편 패킷 통신망의 핵심 플랫폼인 소프트웨어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VoIP 등 차세대 통신망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가격과 성능을 앞세운 소프트웨어가 기존 교환기를 대체하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것. 소프트웨어는 SIP, H.323, MGCP 등 주요 인터넷전화(VoIP) 프로토콜을 수용, 기존 음성 기반 통신망을 음성·영상·데이터를 통합한 패킷 기반으로 진화시켜주는 시스템이다. 국산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특히 기존 하드웨어 교환기를 다국적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토털 솔루션을 개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도 일조하고 있다.

한국IDC는 국내 VoIP서비스 시장이 2006년 2천552억 원 규모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53%로 성장해 2011년에는 1조 419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VoIP 장비 역시 지난해 952억 원 규모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53%로 성장, 2011년에는 1,600억 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구분	2006	2011	성장률
통신서비스	26조 9,000	32조 4,000	3.8%
VoIP 장비	952	1,600	53%

출처: 한국IDC

